

지역 소식통

생태관광 성공모델 '운곡습지식당' 개업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들이 치러내는 건강밥상인 '운곡습지식당'이 문을 열었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 일부에서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운곡습지식당' 개업식이 열렸다.

용계마을은 2014년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다. 주민들은 여행객들과 함께 운곡습지트레킹을 비롯해 오디따기 체험, 누에 먹이주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운곡습지식당 개업을 통해 생태체험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식당은 운곡댐 굴치골 뽕나무밭의 누에를 활용한 동충하초 등 친환경 재료로 담백한 맛의 동충하초 백숙, 웃담백숙, 뽕잎돌솥밥, 보리비빔밥 등의 건강한 음식을 선사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물의 거리 양방향 통행 확정

지난 2006년 준공된 부안군 부안읍 물의 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을 강화한 양방향 통행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부안군은 물의 거리의 포장재인 석재블록이 심각하게 파손돼 노면이 매우 불량하고 인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한 양방향 통행 거리로 재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당초 물의 거리와 관련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양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부안을 이장단협의회장 등 1257명이 물의 거리가 부안읍내권 주거지와 밀접한 생활권이며 성묘병원과 부안군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 양방향 통행으로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동물복지 실현 앞장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반려동물 산책 놀이터 조성 등 전국 선진지 견학도... '사람·동물 공존' 환경 구축 최선

정읍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선진 동물복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산책 놀이터 조성 등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늘면서 지역 내 매년 7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동물보호센터를 신속히 건립해 직영 운영할 계획이다.

유기동물을 보다 안전하게 구조해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고 유기·유실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

이다. 또한 지역 내 반려인들의 바람인 목줄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녹지를 활용하여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하고 산책이나 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대전과 청주 등 전국 6개 지역 반려동물 놀이터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며 적극적인 동물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등과도 구체적이고 폭넓게 소통하며 협력체계를 구축

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동물복지 실현하고, 유기동물 분양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물 보호·복지 분야 종합계획과 최근 문제가 된 유기 동물 보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일로 인해 동물복지 행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용 미생물을 지역 내 농업 현장에 연중 무상 공급을 추진한다.

정읍시, 친환경 유용 미생물 공급 '본격화'

정읍시가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용 미생물을 지역 내 농업 현장에 연중 무상 공급을 추진한다.

유용 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업실천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5월부터 미생물배양실에서 생산한 고초균 등 5종의 미생물을 현재 400여 농가에 30여 톤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멸균 배양기 2대를 확충해 총 6대의 배양기로 연 200여 톤의 유용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일주일간 미생물 활용 농

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영양제와 비료 등 생산비가 크게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해 감소와 품질향상 등 미생물의 효과가 있다는 대답이 88%에 달하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유용 미생물은 땅속에 유기물을 분해하고 효소를 분비해 땅심 증진은 물론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준다.

특히, 고초균은 항진균능력이 뛰어나 곰팡이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광합성균은 식물에 유기탄소를 공급해 광합성을 촉진, 당도와 색도를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 구절초산업 발전 역할 '톡톡'

구절초생산업체·GC녹십자웰빙 공급계약 증대 등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단장 이원욱)이 구절초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향토사업단의 자립화를 위한 방향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7년 출범, 올해까지 구절초 산업 관련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절초 관련 기초연구개발과 시설구축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참여업체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역 구절초 생산업체

인 품의 향기 (유)정읍구절초와 GC녹십자웰빙이 구절초향토사업단의 중개를 통해 건조 구절초 12톤의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앞서 지역 구절초 생산업체와 GC녹십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현장 방문, 성분 검사 등의 과정이 이뤄졌다. 상생 방안을 논의하다 구절초향토사업단의 중개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구절초 생산업체는 GC녹십자웰빙에 올해 12톤의 건조 구절초를 납품하고, 내년에는 20톤의 물

량을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 전문기업인 GC녹십자웰빙은 2018년부터 구절초 성분 검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다.

최근 구절초추출물을 활용한 무릎관절염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해 식약처에 건강기능성 원료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로 향후 구절초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향토사업단장은 "향기공화국의 정읍의 대표 향기 자원인 구절초 산업이 향기 관광산업과 건강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상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17개소 신규 지정

부안군은 축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이 2020년 상반기 17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방식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는 축산업을 위해 지정하고 있다.

이번 2020년 상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전라북도 지정(84개소) 대비

20% 수준으로 현재까지 부안군내에서는 총 44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되었으며(2017년 8개소, 2018년 5개소, 2019년 14개소, 2020년 상반기 17개소) 2023년도까지 80개소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기간은 총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대상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축사시설현대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이 2020년 상반기 17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판 뉴딜 활용 기업 유치"

이강세 부안군의원 촉구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부안·행안 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른 부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시국에서 나아갈 정책방향으로 한국판 뉴딜사업을 밝히고 첫 행보로 부안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방문했다"며 "이는 우리 부안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부안에 찾아온 기회"라며 "이 기회를 활용해 부안군에 꼭 필요한 기업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강세 의원은 기업유치 대책으로 "기존의 농공단지 모델과는 달리

농공단지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해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와 극장, 공방 등의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주민친화형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부안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 권장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강세 의원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전 세계 경제·사회구조마저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복한 부안 건설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